

# 김히어라, '더글로리'로 증명한 존재감

마약중독 연기 인상적...다큐 참고  
오은영도 포기한 '금쪽이' 별명 얻어



배우 김히어라(34)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세계적인 흥행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이 드라마만 보고, 어딜 가든 이야기가 들렸다. 막연히 잘될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까지 올랐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직접 피부로 인기가 와 닿은 순간이다. 특히 이 드라마를 통해 "김히어라가 있다"는 존재감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뮤지컬 '잭 더 리퍼'(2009)로 데뷔한 지 14년 만이다. '베드 앤 크레이지'(2021~2022)로 안방극장에 진출해 약 2년 만에 이룬 성과라서 더욱 보람을 느낄 터다.

"오디션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당연히 캐스팅될 줄은 몰랐다. 새로운 인물을 찾기 위해 공연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 김은숙 작가님과 안길호 PD님이 '내 이름을 알고,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귀한 시간이었다. 처음 캐스팅됐을 때 감격했지만, '근데 왜 나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과 PD님이 공통으로 '욕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면서 '너의 강렬하고 몽환적인 눈빛이 '사라'와 적합했다'고 하더라."

이 드라마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도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김히어라는 동생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인 화가 '이사라'를 연기했다. 처음에는 사라보다 '박연진'(임지연)이 더 끌렸다. 오디션 보기 30분 전 5~6페이지 분량 극본을 받았으며 "누가 주인공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회상했다. 연진이 기상캐스터 후배와 기싸움을 하다가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달에 필할 220만원 주지만, 내 남편은 (방송국 광고로) 2억2000만원을 쓴단 소리아"라고 하는 신이 눈에 띄었다. "입에 착착 붙더라. 연진

을 하고 싶다고 뭐가 뭐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 뭐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대사를 읽었다"면서 "오디션 갔을 때는 사라를 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많은 분이 나보고 '너무 세 보인다'고 하더라. 주·조연끼리 리딩할 때 처음 만났는데, 다들 재는 딱 '사라'라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 나도 그랬다. 지연이가 '언니 첫인상이 그랬어'라고 하길래 '너도 그랬어'라고 했다. (임지연을 보고) '재는 어머어마하다'라고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보통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 봤지?' 싶더라. 평소 캐릭터와 성격이 다른데 조화로워서 신기했다."

김히어라의 마약 중독 연기는 감탄을 자아냈다. 다큐멘터리와 마약중독자 그림을 참고했다며 "아쉬운 점만 보여서 만족하진 못했다"고 털어놨다. "초반에는 PD님이 '그런(마약 중독) 습관을 조금 줄여 달라'고 하더라. 점차 화장을 안 하고 다크서클 등으로 표현했다"며 "파트2로 갈수록 마약 중독이 점점 심해지지 않았느냐. 조사해보니 (마약 중독되면) 뇌가 점점 굳어지고, 생각의 회로가 '100개에서 8개로 준다'고 하더라. 버벅거리면서 느끼게 하고, 말과 말 사이 비퍼링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라는 감옥에 갇히는데, 목사인 아버지에게 (대마가 합법인) '네덜란드에 보내달라'며 떼쓰는 신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분이 '악재가 이화백'이라고 불렀는데, (파트2 공개 후) 오은영 선생님이 포기한 '금쪽이'라고 하더라"면서 웃었다. "당연히 연기하면서 '귀여워 보이고 싶다'는 없었다. 사라의 목표는 확실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데, 엄마·아빠가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때를

쓴 것"이라며 "극본에 '마치 엑소시스트 모습 같다'고 써있어서 쫓겼다. 약간 사탄 들린 듯 악을 썼다. 기괴하게 보이기 위해 소리를 쳤는데, 꽤 귀여워 보인 것 같다"고 했다.

명요 장례식장에서 '최혜정'(차주영) 목에 연필을 꽂는 신을 가장 고민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정상적이지 않고 섬뜩해 보일까?' 싶었다. "처음에는 파탄처럼 외치고, '죄를 사하노라'는 식으로 설교처럼 해보려고 했다. 나와 나의 망상 속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연기했다"며 "딱 하자마자 스크립터가 와서 '언니 너무 좋았어요'라고 하더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괜찮나?' 싶었다. PD님이 좋아해 한 테이크로 갔다"고 귀띔했다.

극중 사라 그림 중 김히어라가 직접 그린 작품도 있다. 평소 취미로 아크릴화를 그리는데, 전시회를 할 정도로 소질이 많다. "100점 중 3점 정도 그렸다. 유튜브로 (마약중독 상태인 사람의 그림을) 많이 찾아보고 그렸다. PD님이 너무 미안한데 '날카로운 선이 너무 디테일하다. 그냥 막 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며 "다른 사람이 스케치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렸다. PD님이 작품 아까우니 '전시하라'고 하더라. 막상 많은 분이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알게 되니 부끄러워서 나중에 소소하게 전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히어라는 촬영하는 내내 '학폭 가해자들을 정당화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사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를 찾기도, 극본을 믿었다. 학폭 가해 사실을 떠나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사라의 양면성과 마약 중독된 습관을 표현하면서 연기자로서 성장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지금 이 시점에 살아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나를 포함한 어른들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봤을 때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학폭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 더글로리는 비단 학폭을 떠나서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게 용기를 줬다. 난 가해자를 연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서 연기하자'고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느껴줘서 감사하다."

김히어라는 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2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극중 캐릭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탈색했는데, 사라 못지않게 매력적이었다. 요즘 자신의 외모를 보며 '유니크 하다'고 생각했다며 "얼굴이 도화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우로서 이목구비가 예뻐다고 할 수 없지만, 유니크함이 색깔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작품을 할 때 예뻐 보이고 싶기도 망가지고 싶다. 탈색했을 때 놀랐지만, 내 얼굴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14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더글로리를 통해 그동안 살았던 걸 보상 받은 것 같다. 배우로서 단단해졌고, 많은 분들이 나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다. 정말 더글로리한 작품이다. 내 인생에서 마법 이야기가 나오고, 10~20년 뒤에도 언급될 작품이 아닐까."

## 경찰 콤비 권상우·김희원...드라마 '한강'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하반기 공개 예정



배우 권상우와 김희원이 출연하는 드라마 '한강'이 올해 하반기 공개된다고 디즈니+가 20일 밝혔다.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한강'은 한강을

지키는 한강경찰대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한강경찰대원들이 한 범죄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상우는 다혈질 한강경찰대 경찰 '한두진'을, 김희원은 한두진과 정반대 성격을 가진 경찰 '이준석'을 연기한다. 이밖에 이상아·배다빈·신현승 등이 출연한다.

디즈니+는 "시민의 공간인 한강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면서 안전을 지키는 한강경찰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강이라는 공간은 물론이고 다양한 볼거리, 신선한 재미를 안겨주는 작품"이라고 했다.

'한강'은 하반기 중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2주 연속 1위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 2주차 주말 71만명 봐 누적 195만명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 2주차 주말 70만명 넘는 관객을 끌어들여 누적 관객수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17~19일 71만2473명이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누적 관객수는 195만1152명으로 주중 무난하게 2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개봉 첫 주말보다 2주차 주말에 관객을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저력을 보여줬다. 개봉 첫 주말 관객수는 약 69만명이었다. 영화 재미와 완성도 면에서 호평 받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점,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다는 점이 '스즈메의 문단속' 순항을 돕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즈메의 문단속' 흥행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전 7시40분 현재 예매 관객수 4만6238명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주 개봉 예정작 중에도 '스즈메의 문단속' 흥행을 저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가진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너의 이름은.'(2016) '날씨의 아이'(2019)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가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새 작품이다. 앞선 두 영화와 함께 '제3부작'으로 불리는 이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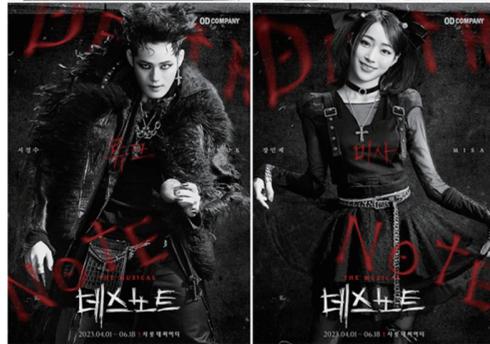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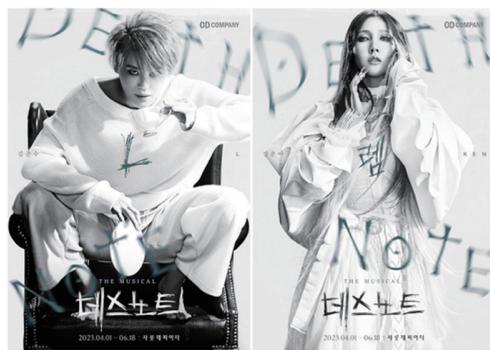


품은 재난을 불러오는 문을 닫으려는 소녀 스즈메와 청년 소타의 이야기를 그렸다. 일본에선 지난해 개봉해 1000만명이 넘는 관객이 봤으며, 지난달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스즈메의 문단속'이 200만 관객을 넘게 되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415만명)와 함께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두 번째 200만 돌파 작품이 되며, 이 두 영화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밖에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더 퍼스트 슬램덩크'(10만7519명·415만명), 3위 '소울메이트'(7만2664명·누적 11만명), 4위 '사슴! 신들의 분노'(4만1663명·누적 6만명), 5위 '귀멸의 칼날:상현전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3만1407명·누적 49만명) 순이었다.

## 김준수, '컬투쇼' 스페셜 DJ...'데스노트'팀 출동



컬 '데스노트' 대표 넘버를 각 1곡씩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이다.

김준수는 세계 최고의 명탐정 엘(L)이 데스노트를 이용해 세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키라의 진실을 밝혀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변함없는 진실을 부른다. 장은아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신 렘의 슬로곡 '어리석은 사랑'을, 서경수는 때를맞춰 달래고자 데스노트를 인간 세상에 떨어뜨려 혼란에 빠뜨린 괴짜 사신 류크의 대표곡 '키라'를 들려준다. 장민제는 '비밀의 메시지'로 제2의 키라가 된 미사가 자신이 동경하는 키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넘버를 선보인다.

'데스노트'는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우연히 데스노트를 줬게 되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천재 학생 '야가미 라이토'와 그를 추적하는 베일에 싸인 명탐정 '엘(L)'의 양보할 수 없는 두뇌 싸움을 그린다.

5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돌아온 지난해 시즌은 역대 최다전 전 회차 전석 매진의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앙코르 공연은 오는 28일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6월18일까지 서울 송파구 사롯데시어터에서 공연한다. 홍광호, 김준수, 고은성, 김성철, 이영미, 장은아, 서경수, 장지후, 류인아, 장민제 등이 출연한다.

## 흥행 불패 조합 장혁·장나라...'패밀리'

다음달 17일부터 한 주에 2편 씩 공개 예정

흥행 불패 조합으로 불리는 배우 장혁·장나라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 첩보 코미디 드라마 '패밀리'가 다음 달 17일 디즈니+에서도 공개된다.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인 이 작품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tvN 공개 직후 디즈니+에서도 볼 수 있다. '패밀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한 국정원 요원 '권도훈'과 완벽한 가정을 꾸꾸는 '강유라'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권도훈은 국정원의 베테랑 저격수이지만, 집에서는 사랑꾼 남편. 강유라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권도훈의 아내이지만, 사랑스러운 모습 뒤에 비밀을 감춘 인물이다. 장혁이 권도훈을, 장나라가 강유라는 연기한다.

이와 함께 채정안·김남희·이순재·김강민·윤상정·신수아 등이 출연한다.

이 작품은 장혁과 장나라가 9년만에 다시 만나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두 배우가 처음 함께한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2002)는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4년에 함께 한 '운명처럼 널 사랑해' 역시 시청률 11%를 넘기며 주목받았다. 같은 해 장혁과 장나라는 단막극 '2014 드라마 스페셜-오래된 안방'에서도 함께 연기했다. 이번 드라마는 이들이 함께 만드는 네 번째 드라마다. '패밀리'는 4월17일부터 tvN과 디즈니+에서 볼 수 있다.



김준수가 21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스페셜 DJ로 나서는 가운데 뮤지컬 '데스노트' 배우들이 출동한다.

스페셜 DJ를 맡은 김준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3·4부 초대석에는 지난해 공연부터 함께 하고 있는 장은아, 서경수, 장민제가 출연한다.

이들은 작품 관련 뒷이야기를 비롯해 뮤지